도로표지판에 숨겨진 카메라…내리막길 갑작스레 제한속도 뚝

아차하면 걸리는 과속운전 과잉·함정 단속 불만 높다

광주 올들어 12만건 적발…운수IC교차로 1만4772건 최다
급제동에 추돌사고 위험도…광주경찰청 전수조사 후 개선

지난 30일 광주지역 과속단속 카메라 중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광주 광산구 운수IC 앞 교차로 단속구간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운전자 박일우(47·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최근 광산구 운수 IC교차로(평동산단 방면) 앞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박씨는 "평소 과속운전을 하지 않는데, (단속에 걸린 것이)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구간의 규정속도가 80km에서 갑자기 60km로 바뀌는 탓에 속도 위반이 많은 곳으로 악명이 높더라"고 푸념했다.

무사고 운전 30년차라는 김인식(59·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지난 주말 북구 무등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하마터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힐뻔 했다.

김씨는 "오르막이었다가 갑자기 급격한 내리막으로 바뀌다보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도 규정 속도를 넘길 뻔했다. 최소한 속도를 제어할 과속 방지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과속을 안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만, 계도가 아닌 과잉·함정 단속으로 인식되는 단속카메라 위치 등을 볼 때면 서민 운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듯 해 불쾌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주 도심에서 단속률이 높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대부분이 계도보다는 단속중심으로 설치·운영돼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과속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속카메라를 도로표지판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놓는가하면,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내리막길에 카메라를 설치한 탓에 일부 운전자의 급제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과속단속된 건수는 11만9937건에 이른다. 속도위반 최소 과태료인 4만원(시속 20㎞미만)씩만 잡아도 47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해당 기간동안 광주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58대(다기능 123대·과속35대)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산구 운수 IC교차로(평동산단 방면) 카메라로 과속 단속 건수만 1만4772건이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30일 운수IC교차로에서 직접 차량운행을 해봤더니, 시속 80㎞ 제한 속도인 2차로의 어등산 터널을 지나자 편도 4차로로 확장되면서 내리막길인 도로에서 갑자기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줄어들었다.

■광주 시내도로 과속 단속 톱10

순위	장소	단속건수
1	광산구 운수동 운수 IC교차로 (평동산단 방면)	1만4772
2	광산구 무진로 SK텔레콤 앞 (무안 방면)	1만158
3	서구 쌍촌동 버들주공 4차 (광천터미널 방면)	6328
4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 (월산동 방면)	4924
5	서구 유촌동 계수4거리 (금호동 방면)	4517
6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 (광주 방면)	4500
7	북구 우산동 무등초등학교 (전남대 방면)	4008
8	남구 송하동 인성고 앞 (남평 방면)	3864
9	남구 구동 서현교회 앞 (중앙대교 방면)	3269
10	북구 용봉동 전남대 치과병원 앞 (신안교 방면)	3200

속도가 줄어든 곳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 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일부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하면서 추돌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광산구 무진로 SK텔레콤 앞(무안방면)은 광주에서 2번째로 높은 단속실적(1만158건)을 자랑하는 곳으로, 단속 카메라 자체를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하남 80m도로 초입인 해당구간은 2016년 매년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망사고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는데, 3개의 도로표지판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탓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함정구간'으로 통한다.

특히 해당 구간의 카메라는 1대당 1차로만 촬영하는 일반 카메라와는 달리 1대당 차선 2개를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 카메라'를 배치한 덕분에 단속률이 더 높다는 게 경찰의 귀띔이다.

이어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인 서구 쌍촌동 버들주공 4차(광천터미널 방면·6328건), 서구 유촌동 계수 4거리(4924건),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 (4500건), 북구 우산동 무등초등학교 (전남대 방면·4008건) 등을 둘러본 결과, 쌍촌동 버들주공 4차로 구간도 80km이던 속도제한이 내리막 구간에서 갑자기 60km로 바뀌면서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단속률을 높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스쿨존(제한속도 30km)인 북구 우산동 무등초등학교 앞 도로(전남대 방면)는 자칫 방심했다가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힐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해당 구간은 운전자가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는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진입했다가 내리막 진입 후 100여m 지점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카메라 단속을 인지한 뒤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속도를 제어해줄 과속 방지턱 등이 없는 탓에 제한속도를 넘기는 운전자가 많았다.

지난 7월 취임한 김규현 광주경찰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단속 방향을 지시하고, 단속건수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지시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담당은 "주요 단속 구간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을 다수 설치하고, 대형 단속표지판까지 설치하고 있다"며 "무등초 앞 등은 자치단체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 최근 3년간 49명 사망·6830명 부상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7000명에 육박한 어린이·청소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학전 아동 및 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은 모두 687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49명으로 광주 18명, 전남 31명이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학전 아동 16명,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5명 순이었다. 부상자는 총 6830명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414명) 비중으로 따져 11.8%, 부상자는 9.0%(7만5089명)를 차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과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3년 733건에서 지난해 926건으로 26.3% 증가했다.

이중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상한 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지난해 479건으로 12.2% 늘었다. 같은 기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4099건) 중 12세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사고(2450건)는 59.8%에 달했으며 사망자(59명) 중 12세 미만(34명)은 57.6%였다.

사고 가해자의 법규 위반 사항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967건, 39.5%)과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62건, 22.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고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2013년 32건에서 2017년 103건으로 3배 증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자 원생 학대 광주 보육시설 수사 착수

현 원장·당시 대표이사 소환키로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린 여대생〈광주일보 2018년 9월27일자 6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은 "최근 광주 한 보육시설 원장과 대표이사 등에 대해 시설에 거주했거나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보육시설 원장은 지난 2013년 부임한 이후 2016년 당시 17세인 고모(19)양이 자신의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는 등 '품행장애'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 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의 사연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지난 7월 'A 보육시설의 원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아동들이 겪었을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고양을 상담한 YWCA 솔빛타운시설은 지난 13일 현 원장과 당시 복지법인대표이사 등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주 동부경찰에 고발장 내용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고발장을 낸 YWCA 솔빛타운시설 관계자를 조사했고, 조만간 보육시설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모가 없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해요…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도움을 호소했다.

고양은 청원글에서 "인권위의 직권 조사 이후 저에 대한 보복성 학대는 더욱 노골적이라서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다"며 "원장은 제가 미쳤다며 오히려 인권위 조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적었다.

이어 "부모님이 없어 갈데도 없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 원장으로 인해 시설에서 만나 가족처럼 지낸 동생과 언니, 친구들이 정신병원, 보호관찰소로 보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대법 "성적 욕망 아니라도 보복성 음란 문자 유죄"

상대방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비슷한 내용의 '되갚기식' 음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음란문자를 총 22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은밀한 신체 부위 크기를 자신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난 나머지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신체 비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9개월 아들과 하천 투신 구조 20대 女, 아동학대 처벌 검토

쌍나팔

○…삶을 비관한 20대 여성이 9개월된 아들을 품에 안고 하천으로 투신했다가 무사히 구조됐으나, 이번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될 위기.

○…지난 30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18분께 화순군 남면의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 A씨가 생후 9개월인 아들을 안고 수심 2m 안팎의 하천으로 뛰어들었고, 아이를 안은 채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목격돼 17분만에 소방구조대에 구조됐다는 것.

○…추석 명절을 맞아 외가집을 방문한 A씨는 외할머니와 다툰 이후 홧김에 하천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저체온증을 보이던 A씨와 아들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 단계에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아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천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

/화순=조성수 기자 css@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3967	1	순천시 해룡면 대석길98, 202동 1층 107호 [청솔아파트] 56.40㎡	아파트	93,000,000 93,000,000	
2018타경 4632	1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70, 701동 3층 306호 [부영아파트] 84.99㎡	아파트	159,000,000 159,000,000	
2018타경 52068	1	순천시 하풍1길1, 가동 4층 405호 [풍덕동,삼산아파트] 74.75㎡[감정평가액은소유자지분전부에관한것]	아파트	85,999,998 85,999,998	2018타경50079[중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 1091	1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17 99㎡	대	49,610,460 49,610,460	일괄매각.목록4주택공부상면적20평[66.1㎡]이나현황51.3㎡이고공부상창고2평은멸실.제시외건물5동포함.제시외건물중2동일부타지상소재
		동소 18-5 24㎡	도로		
		동소 18 376㎡	대		
		고흥군 과역면 백일길 58 20평 부속건물 창고2평 제시외 창고 등 130.27㎡	단독주택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18-3 3㎡	대		
		동소 18-2 2㎡	대		
		동소 18-4 2㎡	도로		
2018타경 2636	1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305 272.1㎡	대	99,076,450 99,076,450	일괄매각.수목및제시외건물포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17-3 99.25㎡ 제시외 창고 등 42.4㎡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982	1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138 367㎡	전	5,498,780 5,498,78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목록1연고미상분묘소재
		동소 1203-1 596㎡	전		
		동소 1370-1 1914㎡	답		
		동소 1378-2 1321㎡[물건번호1:진영화지분6/77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	동소 1212-1 668㎡[진영화지분6/77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대	1,685,600 1,685,600	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3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808 952㎡	전	11,424,000 11,42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1572	1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121-3 433㎡[제시외건물제외.경계측량요]	전	5,663,000 5,6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
2018타경 2520	1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28-4 288㎡[토지만매각]	대	5,184,000 5,184,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18타경 2575	1	순천시 석현동 835 10498㎡ 제시외 건물기초공사 등 298.68㎡	답	613,789,600 613,789,600	일괄매각.건물신축공사중중단된상태로보이는제시외건물2동포함.유치권신고서제출
		동소 835-5 160㎡	답		
2018타경 2698	1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51 241㎡[토지만매각,수목포함]	대	6,774,000 6,774,000	매각제외타인소유제시외건물있음
2018타경 3271	1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85-18 6283㎡[최종등기분2315/6283전부,입목포함]	임야	48,615,000 48,615,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3325	1	순천시 월등면 신월리 산120 25983㎡	임야	31,179,600 31,179,6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18타경 3660	1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41-1 1997㎡	전	8,387,400 8,38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1232	1	광양시 황길동 8-4 258㎡	답	31,476,000 31,47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1287	1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400-4 10㎡	답	2,329,600 2,329,6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02-13 76㎡	답		
		동소 402-14 1㎡	답		
2018타경 51584	1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13-2 2507㎡[최덕희지분1/8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4,415,020 14,415,02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8타경 2766	1	순천시 연향동 1616-4 276.5㎡	대	500,209,300 500,209,300	일괄매각.건물2층및3층리모델링공사진행중중단상태
		동소 1616-4 1층160.56㎡[단독주택] 2층160.56㎡ 3층108.21㎡[단독주택]	사무소		
2018타경 4816	1	순천시 조례동 1731-2 스카이오피스텔 5층505호 39.54㎡	오피스텔	91,500,000 91,500,000	
	2	동소 1731-2 스카이오피스텔 5층 507호 40.83㎡[을구순위번호2번전세권설정등기[2013.9.16.제42831호]는말소되지않고매수인에게인수됨]	오피스텔	94,500,000 94,500,000	
[자동차,중기]					
2018타경 4205	1	사용본거지:광양시 김시식지길 4 [태인동] 등록번호:전남82바5045 차명:동우13미터가변형평판트레일러 연식:2015[본건차량은화물[피견인형]임]	자동차	35,000,000 35,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차동차매매상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10. 1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10. 22.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